

스위스정부관광청 설립 100 주년.

아트 포스터와 5 인의 사진작가의 작업을 통해 바라보는 스위스 노스탤직한 아트 포스터는 비쥬얼 커뮤니케이션의 미술사적 보석 스위스 사진 재단과 엘리제 박물관이 선정하고 기획한 세계 5 인 사진작가가 바라본 스위스 취리히, 빈터투어, 로잔, 벨린쪼나, 루체른 스위스 전국에서 전시 열며 100 주년 기념 예부터 지금까지 포스터와 사진 보며 동경해 오던 스위스 만날 수 있어

2017 년은 스위스 정부관광청(Switzerland Tourism)이 설립 100 주년을 맞는 해이다. 1917 년 11dnjf 28 일 스위스 국회의 승인을 받아 스위스 정부 관광 사무소(Schweizerische Verkehrszentrale/Swiss National Tourist Office: SNTO)라는 이름으로 개소한 스위스정부관광청은 교통, 서비스, 레스토랑, 숙박업체 문화 시설 등 관광업계 서비스 업체들간의 광범위한 협력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인 마케팅으로 '스위스'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 '최고의 관광지'이자 '회의 및 행사 장소'로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해 온 바 있다. 2017 년 현재 서울 사무소를 포함해 전 세계에 26 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총 244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100 년 동안 이루어진 스위스정부관광청의 프로모션은 아트 포스터부터 디지털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단의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해 왔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및 정치적 변화에 의해 수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스위스정부관광청은 설립 100 주년을 기념하며 이런 과거의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모아 취리히 디자인 박물관(Museum für Gestaltung)에서 "휴가를 떠나자(Take a Holiday!)"라는 이름의 전시회를 오픈했다. 과거를 엿볼 수 있는 전시 외에도 또 다른 테마의 전시회를 통해 다섯 명의 사진작가의 눈으로 보는 현재의 스위스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익숙하지 않은 친숙함. 바깥에서 바라다본 스위스(Unfamiliar Familiarities. Outside Views on Switzerland)"라는 제목으로 기획된 이 사진전은 빈터투어(Winterthur)의 스위스 사진 재단(Swiss Foundation for Photography)과 로잔(Lausanne)에 있는 엘리제 박물관(Musée de l'Elysée)가 공동으로 기획한 것으로, 스위스의 아름다운 모습을 독특한 시각으로 감상할 수 있다. 모두 스위스정부관광청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이벤트다.

휴가를 떠나자!

Take a Holiday!

취리히의 디자인 박물관은 디자인, 비쥬얼 커뮤니케이션, 건축에 대한 흥미로운 전시를 하는 곳으로, 전세계에서 수집한 방대한 포스터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이 중 수 많은 작품은 스위스의 관광을 알리기위해 제작된 포스터를 작업한 아티스트들의 것이기도 해, 스위스정부관광청에도 의미기 크다. 오랫 동안 포스터에 나타난 스위스의 이미지는 스위스를 관광지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 여행초창기 선구자들 시대부터 관광 기반 시설 및 교통편이 개발될 때까지 스위스의 여행에 어떤 진화가 있어왔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이 의미있는 컬렉션이 바로, 이번 "휴가를 떠나자!" 전시의 주요 테마다. 포스터, 사진, 가이드북, 영화를 통해 스위스 관광 프로모션의 역사를 짚어 볼 수 있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스위스에 대한 비전을 표현한 그래픽 작업을 통해 전 세계 여행자들이 동경해 왔을 스위스를 볼 수 있는 기회다. 취리히 디자인 박물관 전시 이후에는 벨린쪼나(Bellinzona)의 고성, 까스텔그란데(Castelgrande)와 루체른(Luzern)의 교통박물관(Verkehrshaus)에서도 그 전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취리히 디자인 박물관에서는 2017년 3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벨린쪼나에 있는 까스텔그란데 성에서는 8월 5일부터 10월 29일까지, 루체른의 교통박물관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취리히 디자인 박물관: www.museum-gestaltung.ch

루체른 교통 박물관: www.verkehrshaus.ch

익숙하지 않은 친숙함. 바깥에서 바라다본 스위스

Unfamiliar Familiarities. Outside Views on Switzerland

여행과 관련된 감성을 자극하는 데는 예나 지금이나 사진만큼 스위스를 여행지로 전 세계에 이름나게 기여한 매체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스위스정부관광청은 또 다른 빛깔로 스위스를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프로젝트이자 현대 사진 작업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를 기획했다. 빈터투어의 스위스 사진 재단 및 로잔의 엘리제 박물관의 재정적 지원과 가이드를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섯 명의 사진작가를 초청해 아무런 제약 없이 독립적이고 주관적이며 감각적인 관찰을 통해 "스위스의 이미지는 무엇인가"란 물음에 답한 작업을 감상할 수 있다. 멕시코계 영국인인 알린카 에체베리아(Alinka Echeverria), 미국의 쉐인 라발렛(Shane Lavalette), 독일의 에바 라이톨프(Eva Leitolf), 영국의 사이먼 로버츠(Simon Roberts), 중국의 장 샤오(Zhang Xiao)가 제시하는 제각기 다른 사진의 세계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스위스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어줄 것이다.

본 전시는 빈터투어 스위스 사진 재단에서는 2017 년 2월 19 일부터 5월 7일까지, 로잔 엘리제 박물관에서는 2017 년 10월 25일부터 2018년 1월 7일까지 감상할 수 있다.

빈터투어 스위스 사진 재단: www.fotostiftung.ch

로잔 엘리제 박물관: www.elysee.ch

**** 이미지에는 개별 저작권이 붙어 있습니다. 반드시 아래대로 표기해 주셔야 합니다.

포스터 이미지: Poster 로 시작하는 파일들: © Museum für Gestaltung, Billboard collection @ZHdK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